

인터넷상에서의 효율적인 정보검색 방법

이 동 영 · 정 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1. 서 론

..... WWW(World Wide Web, 이하 Web ; 웹)는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모아 그래픽으로 메뉴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WWW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문자 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 비디오 등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웹은 하이퍼링크(hyperlink)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어서 임의의 Web에 접속만 하면 전세계 Web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무수한 Web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수 없이 널려져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찾기 어려운 정보를 찾아 분석하고 재가공을 통하여 정보의 가치를 부가적으로 창출해 내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는 즉 인터넷 상에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검색 방법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2. 본 론

정보란 자료 중에서도 인간의 활동, 지식, 사고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정보검색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2.1. 정보검색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선입견을 버리고 시작 해야한다.

-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
- 정보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 인터넷을 통해서만 찾는다.

2.2. 정보검색의 전략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 1) 검색할 내용이나 주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즉 개념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검색테마를 추출하여야 한다.
- 2) 가능한 검색의 방법과 시간을 고려한 검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검색영역과 적절한 DB접근 방법에 대한 시간안배가 필요함을 말한다.
- 3) 가능한 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검색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와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검색엔진의 선택 및 각 엔진에 따른 검색이 중요하다.
- 4) 검색결과를 검토할 때는 목적에 적절한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 및 추가분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5) 적절한 형태로 정보를 재가공 하여 이용한다.

2.3. 검색엔진이란?

WWW 등장 이후,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신만의 홈페이지(homepage)에 올려 놓음으로써, 정보의 제공단위가 기관에서 개인으로 작아졌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자료들로 인해 더욱 더 검색량은 거대해져 갔다. 이런 대량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엔진(Search Engine)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각 URL(각 홈페이지들의 고유한 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에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Robot Agency"-웹 서버(Server: 정보제공자)를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 서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많은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이란 도구가 생겼으며 해마다 새로운 종류의 검색엔진이 발표되고 사용되고 있다.

검색엔진의 기능은 크게 사용자의 질의에 관련된 정보의 실마리(위치, 이메일주소등)를 알려주며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인 정보를 정형화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주고 인터넷중에서도 웹 문서를 검색대상으로 하는 웹 검색엔진을 지칭한다. 정보의 색인 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 번에 찾기는 어렵다.

이 검색엔진은 크게 유료와 무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무료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자료는 신속하고 풍부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이 취약한 반면 유료로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적이고 신뢰성이 보장되나 비용이 비싸고 숙달된 기술을 요구 하게 된다.

2.4. 검색엔진을 이용한 정보검색 요령

특별한 요령이 있다가 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만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찾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검색엔진에 대한 질의 방법에 대한 문서(설명서)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검색엔진은 정보검색의 간단한 패턴매칭(Pattern Matching)방법에서 부터 부울린 모델(Boolean Model), 확률 모델, 벡터 스페이스(Vector Space) 모델 등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모델이 등장한다. 싱글 텀(Single Term; 한단어의 검색어)과 같은 간단한 질의 보다는 AND, OR, NOT 등을 사용한 구체적인, 논리적인 질의를 해야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2) 가중치(Weight 또는 Score; 해당 결과물에 대한 신뢰 점수)를 믿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서 그 가중치가 정확하다고는 맹신할 수 없는 것이다

3) 적절한 검색엔진을 선택

일반적인 검색 이외의 특정 부문(예 : 논문검색, 특허

정도 검색 등)의 검색은 그 나름대로의 검색 방법이 따로 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용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검색엔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좋은 키워드(Keyword; 검색어)의 선택이 중요하다.

짧은 키워드는 피하고, 키워드는 구체적이고 길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고유명사는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5) 모든 것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웹의 역사는 1980년 전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970년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6) WWW이 정보검색의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라.

각종 BBS, 뉴스 그룹, 메일링 리스트의 사용 외에 가장 좋은 것이 그 정보에 대하여 알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E-mail)를 보내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당신의 감각을 믿으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어도 모든 결과가 원하는 것은

표. 검색어 선정시 고려사항

용어절단	좌측절단	우측절단	양쪽절단	중간절단
유사한 용어 검색	표기는 같으나 뜻이 다른 용어	개념이 같은 유사어	상·하위 개념	관련어
불용어	검색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 - 조사 접속사등(인접연산자료 해결)			
색인방법	통제어색인-미리 검색어 정의 ※ 통제어어휘집 : 분류색인-분류표 주제명색인-주제명표 키워드색인-시소러스(Thesaurus)	자연어색인-자연어 발췌 ※ 동의어나 유의어 등을 검색어로 쓰지 않으면 재 현률이 떨어진다. -용어절단이나 시소러스, 동의어 사전드응로 보상	시소러스(Thesaurus) 동의어, 계층관계, 관련성을 고 려해서 만든 통제어 용어집(용 어족보) 사례 : 중앙일보 JOINS시소러스	

아니다. 마우스 끝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좋은 정보를 찾는데 왕도는 없다 따라서 많은 곳을 다녀보고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나만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2.5. 정보 검색 결과의 평가

1) 결과가 나쁜 경우

정보검색시 불분명한 정보, 불확실한 검색식이나 데이터베이스 선정 오류, 엔진의 효율성 저하 등을 살펴본다.

2) 검토사항

- 검색식에 철자는 올바르게 입력했는가?
- 고유명사는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 불리언 연산자와 인법연산자의 사용은 올바른가?

2.6.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종류

검색엔진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네가지 종류로 나뉘볼 수 있다.

1) 주제별 검색 엔진

이 검색 엔진의 대표적인 것이 야후(Yahoo)다. 각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이 동작을 "링크(Link)"라 함) 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계속 링크해서 들어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한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주제별 검색 엔진의 장점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것의 대분류 정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정보만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이런 주제별 검색 엔진들의 추세는 "단어별 검색 엔진" 유형까지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색어를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여 직접 원하는 정보로 접근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별 검색 엔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검색 엔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심마니, 코시크, 야후등이 있다.

2) 단어별 검색 엔진

이 검색엔진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방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도서관 정도 생각하면 됨)에 모든 홈페이지들의 URL(각 홈페이지의 유일한 주소들)을 저장하고 특정 키워드(Keyword;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야후(Yahoo)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그 홈페이지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문서상자'를 볼 수 있다. 그 상자 안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클릭>을 하면 "I"자 모양의 커서가 깜박거림을 볼 수다. 그곳에서 본인이 찾기를 원하는 단어의 몇 가지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Search]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을 시작하며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단어별 검색 엔진의 장점은 간단한 키워드(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색인(Index; 책 뒤에 있는 사전식 단어 찾기 분류목록을 색인이라 함)이 정확하지 않은 검색 엔진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즉 해당 검색엔진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검색엔진의 특징은 검색결과에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Weight score)를 준다. 가중치란 해당 검색 결과의 컴퓨터가 주는 신뢰 점수이다. 높을수록 정확한 검색결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님을 하여야 한다.

단어별 검색 엔진에 해당하는 검색엔진들로는 까치네, Lycos, WebCrawler 등이 있다.

3) 메타 검색 엔진

많은 검색 엔진을 한데 모아놓고 검색하기 편리하게 만든 도구(검색 엔진)이다.

각각의 검색엔진을 옮기면서 질의(검색어를 주고 묻는 작업)할 필요없이 하나의 조작환경(interface)으로 각각의 검색엔진을 검색한다.

웹 자원뿐만 아니라 Software, People, Publications, News/FAQs, Documatation 등의 환경까지도 제공한다. 즉 웹 문서(HTML 문서)만을 검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뉴스그룹 또는 FAQ같은 문서까지도 찾아주는 아주 넓은 검색영역을 갖는 것이 장점이다.

각종 검색 엔진과 다른 문서나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메타 검색 엔진에는 찾고파(금성), 구골(JMI) 등이 있다.

4) 통합 검색 엔진

한번의 검색으로 여러 검색 엔진을 동시에 검색해서 대부분 멀티 스레드 기법을 사용하므로 한번의 검색 시간으로 여러 곳을 검색할 수 있다. 통합 검색 엔진에는 다찾니, Savvy Search 등이 있다.

2.7. 서치 엔진의 성능 비교

사용자들이 서치 엔진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각 서치 엔진의 무엇을 비교해 볼 것인가와 얼마나 쓰기가 편한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각 서치 엔진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데이터 베이스의 양과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로 그 수준이 가늠된다. 지금부터 이 점에 신경을 쓰면서 대표적인 각 서치 엔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Yahoo(<http://www.yahoo.co.kr>, <http://www.yahoo.com>)

Yahoo는 서치 엔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엔진이다. 스탠포드대의 전기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두 명의 학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95년 초 넷스케이프 사의 마크 앤드리슨을 만나면서 Yahoo는 오늘날과 같이 가장 유명한 서치 엔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Yahoo의 특징은 그 구조가 다른 서치 엔진과는 달리 검색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웹 서버들을 주제별로 계층 구분을 매우 잘 해 놓았다는 점이다.

초기 화면에서 자신이 찾는 정보와 관련된 주제어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화면에 나타난 소항목 중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단계적으로 쉽게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티즌들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서치 엔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또 다른 특징은 비즈니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2) Lycos(<http://www.lycos.com>)

라이코스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으로 비교적 역사가 깊고 데이터 베이스의 규모도 큰 편이다. 라이코스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에 있는 www문서의 91%에 해당하는 약 1천만 개의 www주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서치 엔진마다 자기가 가장 쓰기 편하고 성능도 강력하며, 실제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많을 수록 서치 엔진의 화면에 제공하는 광고를 광고주에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서치 엔진이 제공하는 자료는 완전히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키 워드를 입력할 때에는 적어도 3자 이상을 입력해야 하며 특수문자 "-"는 NOT, "."는 EXACT MATCH, "\$"는 접두어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입력을 끝내면 가중치, 인덱싱 시기, 타이틀 키, EXCEPT 등이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3) Web Crawler(<http://www.webcrawler.com/>)

웹 크롤러도 라이코스나 야후와 같은 1세대 서치 엔진이다. 검색 속도가 상당히 뛰어나며, 규모는 조금 작은 편이다.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다른 서치 엔진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유독 비즈니스 분야만큼은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주 이용객들이 기업가들이라는 점이 내세울만 하다.

4) Infoseek(<http://www.infoseek.com/>)

인포시크는 웹 서버의 주소뿐 아니라 뉴스 그룹에 등록된 글, 각 뉴스 그룹들의 초보자를 위한 문서(FAQ) 및 여러 웹 서버들에 대한 평가(Review) 등까지도 별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네티즌 자신의 웹 서버나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Add URL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포시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

지만 곳곳에 유료정보가 숨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료 사용자들은 1회 검색으로 100개의 검색 결과만을 볼 수 있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면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가입을 해야 한다.

인포시크의 유료 서비스 이름은 인포시크 프로페셔널(Infoseek Professional). 여기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일단 맛보기 서비스인 "Free Trial"을 사용해 보기 바란다. 가입 신청을 하면 1개월간 14.95달러 어치의 무료 정보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검색 방법은 먼저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이름이나 기업명 혹은 제품명 등의 고유명사를 검색할 때에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입력해 준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Franklin roosevelt 라고 입력하면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하지만 Franklin Roosevelt라고 입력하면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다. 또한 Laser Printer 처럼 반드시 두 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오는 복합 명사의 경우에는 "Laser Printer" 와 같이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Laser-Printer"와 같이 하이픈을 사용해 입력한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Laser 라는 단어와 Printer 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모든 문장이 전부 검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예로 여러 개의 단어를 []로 묶어 주면 괄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이 100개의 단어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일 때만 검색된다. 예를 들어 [wearher San Jose current forecast]라고 입력해 주면 괄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한 문장안에 있거나 이웃한 문단 안에 있는 경우)만 검색되므로 검색의 폭을 좁힐 수 있다.

5) Alta Vista(<http://altavista.digital.com/>)

알타 비스타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에 힘입어 나날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주다. 웹 서버뿐만이 아니라 유즈넷(Usenet)에 등록된 글까지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서치 엔진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DEC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www의 경우 2천 2백만 개의 웹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110억개의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라이코스 약 1천만 개의 웹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유즈넷의 경우 약 1만 3천여 개의 뉴스 그룹에 등록된 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등록된 자료는 모두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결국 현재 구축된 서치 엔진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알파 비스타는 196MB의 메모리를 가진 알파 스테이션(AlphaSt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밤늦은 시간에는 접속이 잘 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정반대라 한창 피크타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알파 비스타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서치 엔진이며, 유즈넷 뉴스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뛰어난 엔진이라는 것이다. 머지 않아 서치 엔진의 대명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Open Text Index(<http://www.opentext.com/omw/f-omw.html>)

이 서치 엔진은 약 210억개의 단어와 구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모든 웹 페이지 인덱스의 모든 단어들을 검색한다. 검색어의 길이에 상관없이 결과를 출력하며 웹 서버의 타이틀만 검색할 수도 있다.

오픈 텍스트는 Simple search와 Power search, Weighted search의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가장 일반적인 검색 방법은 Simple search로 화면에 하나의 단

어 입력창만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Power search는 여러개의 검색어와 검색 조건을 쉽게 입력할 수 있고, Weighted search는 검색 결과에 가중치가 첨가된 목록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검색 결과는 라이코스과 비슷하지만 사회 분야만큼은 라이코스보다 월등하다.

7) Savvy search(<http://guaraldi.cs.colostate.edu:2000/form>)

95년 초부터 꾸준히 서비스 향상을 하고 있는 서치 엔진으로 현재 통합 서치 엔진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avvy 서치는 17개국어로 서비스되며 한글검색도 가능한 다국적 통합 서치 엔진으로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WebCrawler, Yahoo, Lycos, Infoseek 등의 다른 서치 엔진을 실시간에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큰 단점은 각 서치 엔진의 가중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8) 까치네(<http://www.taegu.ac.kr/ka>)

“까치네”는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성훈 씨가 개발한 것으로서 로봇 에이전트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서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어별 서치엔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 편인데, 우선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리턴키를 누르거나 “검색 시작”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시작되고 결과를 보여준다. 검색 조건으로는 “제목만”, “비슷한것”, “똑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다. “제목만”을 선택할 경우는 URL과 타이틀, 그리고 <h1>정도에 있는 정보만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비슷한 것”은 전체 본문을 검색해 주며 “똑같은 것만”은 입력한 단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이트만을 출력하는 검색 옵션이다. “까치네”는 웹 서버와 유즈넷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검

색어 Best100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찾아볼까 하는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기도 하다.

9) Mr.Dachanni(<http://zec.kaist.ac.kr/dachanni/index.ks.html>)

충남대학교 유동화 및 분체공학 연구실의 “한여름”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김영령 씨가 개발한 주제별 분류 서비스 엔진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Yahoo”와 흡사하다.

3. 결론

위에서 거론한 많은 검색엔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요건은 갖춘 검색엔진의 선택이 중요하다.

-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것.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갱신(수정) 주기가 빠를것.
- 검색 속도가 빠를것.
- 검색옵션의 다양성 및 편리한 사용자환경(interface)를 제공할것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이론과 실체는 다르므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여 활용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어렵다고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인터넷을 길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사용에도 습관이 제일 무섭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활용 가능한 풍요로운 자료들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WWW 관련 용어

◆ BROWSER

WWW 서버에 접근하여 원하는 문서를 찾아볼수 있게 해주는 API로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의 경우에는 “telnet” 등으로 WWW 서버에의 서비스를 이용 하였지만 현재는 browser(MOSAIC, NETSCAPE 등)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 HYPERTEXT

일반적인 text 문서들과 동일 하지만 한가지 차이점은 문서내에 다른 문서에 대한connection point를 가지고 있어 일련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link를 만들어서 이동할수 있게 해주므로 사용자는 browser내에서 원하는 포인터를 누르면 원하는 문서를 연속적으로 검색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hyperlink(hypertext내에 있는 link : connection point)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온갖 정보 사이를 여행할수 있는 것이다.

◆ HYPERMEDIA

Hypertext의 슈퍼셋인 hypermedia는 다른 문서에 대한 link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sounds, movies, images 등)데이터 와도 link를 가지고 있어 browser를 이용하여 sounds, movies, images와 같은 데이터를 보고 들을수 있게 해준다.

◆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인터넷상의 찾고자하는 대상(문서, object)의 위치를 명시하는 파일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들을 참조할수있다. URL은 인터넷상에서 대상(문서, object)

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URL 개념이 WWW의
장점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유니텔, 하이텔, 천리안등의 PC통신 공
개자료실 및 삼성전자 세미나 자료중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